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32장 기도하는 법

『산상설교』 하권 제32장, 인쇄 24~38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5-8

> ❓ **기도할 때조차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한다는 건 어떤 걸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이 대목을 바리새인 비난으로만 읽는 습관을 먼저 깬다. 이 본문은 죄가 사람 마음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까지 따라온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그는 이 사실에서 중생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이어 거짓된 기도의 두 과오를 다룬다. 하나는 관심이 기도하는 나에게 쏠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의 분량과 형식에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접근 방법에 달려 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식'하고,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설교는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아버지께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권면으로 끝난다.

📜 절별 정리

📜 1.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 하나님 앞까지 따라오는 죄

로이드 존스는 이 대목을 마태복음 6:1에서 세운 원칙,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의 두 번째 실례로 놓는다. 첫째 실례는 구제였고, 이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다. 그는 이 본문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고 우리의 교만을 꺾는 대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요란한 위선자를 폭로하는 글로만

자긍의 죄를 드러내는 데 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성향'이고, 결국 자기 경배이자 자기 아첨이다. 그 증거로 그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천국에 거하던 천사 사탄이 타락했다는 점을 든다. 사탄의 참모습도 삶의 밑바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광야에서 보인다. 가장 고상한 모습, 곧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에서도 죄는 고개를 든다. 이 사실이 우리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은혜와 용서, 중생과 새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경고다.

1. 이 본문은 바리새인 비난 이전에 내 죄의 폭로다
2.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의 성향, 곧 자기 경배다
3. 죄는 기도라는 최고의 활동까지 따라온다
4. 사탄은 천국에서 타락했고, 광야에서 정체를 드러냈다
5. 그러므로 중생은 절대 필요하다
6. 거듭난 신자에게 주신 경고다

> **마태복음 6:1**
> 구제·기도·금식 전체를 묶는 원칙. 기도는 그 둘째 실례다
>
>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 **마태복음 6:5**
> 경건한 행위 안에도 자기 과시가 숨어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
>
>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마태복음 4:1-11**
> 사탄의 참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광야에서 드러난다
>
>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시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 되게 하라 [4]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

“죄는 우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 2. 거짓된 기도 ① — 기도하는 '나'에게 쏠린 관심

거짓된 기도는 접근이 잘못되어 있다. 기도를 받으실 분보다 기도하는 사람 자신에게 주의를 모은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와 큰 거리 어귀에 섰다. 너무 경건해서 성전에 닿을 때까지 기도를 미룰 수 없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함께 놓는다. 바리새인은 맨 앞에 나섰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쳤다. 이 죄는 단계를 밟는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다음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된다. 그는 세 가지 예를 든다. 첫째, 20세기 초 산상설교에 관한 유명한 책을 쓴 주석가는 바로 이 위험을 경고했다. 그런데 그의 전기에는 그가 방을 옮기다가 복도에서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경건의 증거로 실려 있다. 로이드 존스는 차라리 걸어가며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다면 더 위대한 성도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둘째, “나는 늘 은밀히 기도한다”면서 기도 시간이 길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만드는 은밀함도 있다. 셋째, 회의가 끝나면 늘 혼자 높은 바위에 올라 기도해 감탄을 산 선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수고 속에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조금 섞여 있지 않은지 묻는다. 별난 행동은 무엇이든 결국 자기에게 주의를 끌기 때문이다.

1. 거짓 기도는 받으실 분보다 기도하는 나를 본다
2. 알려지고 싶은 마음이 보이고 싶은 욕망으로 자란다

4. 남들이 다 아는 '은밀한 기도'도 있다

5. 별난 행동은 결국 자기에게 시선을 끈다

마태복음 6:5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에 띄는 곳에서 기도하는 외식을 묘사한다

>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18:9-14

앞에 나선 바리새인과 멀리 선 세리의 대조로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3

하나님께 닿는 기도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통회의 부르짖음이다

>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 3. 공중기도와 '아름다운 기도'의 문제

같은 과오의 또 다른 형태가 있다. 하나님께 경외로 나아가기보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려고 공중기도를 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무서운 죄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이른바 '아름다운 기도'에도 이 약점이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는 이 문제로 스스로와 자주 논쟁해 왔다며 단정을 피한다. 반대편 주장도 공정하게 소개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 아름다워야 하니 말씨와 어휘, 배열과 억양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논리에 힘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도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이자 교제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말씨를 다듬어 세련되게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참된 교제에는 본래 자연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그는 강단기도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이것은 더 큰 문제와 얽혀 있다며 생각해 볼 거리로만 남긴다. 그가 세우는 통제 원칙은 이렇다. 기도하는 사람은 온 존재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교인들이 아름다운 기도에 감사하면 기뻐할 일이 아니라 괴로워할 일이다. 그는 18세기와 19세기를 대조한다. 18세기 위대한 전도자들의 기도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반면 19세기 '강단 거인들'의 인기 있는 기도문은 많이 남아 있다. 그는 이것을 원인으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런 흐름이 오늘의 영성 부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교회는 점잖고 위엄 있어졌지만, 예배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이다.

1.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공중기도는 무서운 죄다
2. 아름다움을 주장하는 쪽에도 일리는 있다
3. 그러나 기도는 아버지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다
4. 기도에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괴로워해야 한다
5. 공중기도는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실려 가는 것이다

> **마태복음 6:5**
> 공석의 기도에서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외식의 뿌리임을 보여준다
>
>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4. 거짓된 기도 ② — 분량과 형식에 기대는 기도

둘째 과오는 기도의 효력이 분량이나 형식,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다.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로이드 존스는 동방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돌리는 기도 바퀴와 로마 가톨릭의 염주 세기를 예로 든다. 그러나 이 과오는 우리에게 더 교묘한 형태로 다가온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다. 하지만 관심이 기도 자체보다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데로 기울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는 이슬람교도처럼, 누가 방해하면 화를 내면서까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묻는다. 위대한 성자들이 기도에 긴 시간을 쓴 것도 오해되기 쉽다. 많은 시간을 쓰면 성자가 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자에게 중요했던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기도가 곧 삶이 되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주님은 이런 기도에 대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신다.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원했고 그것을 받았다. 부고 기사는 그들을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받을 상의 전부다. 반대로 문장 하나 제대로 잇지 못한 채 고통 중에 울부짖는 영혼은 하나님께 닿아 상을 받는다.

1. 기도의 효력은 분량·형식·시간에 있지 않다
2. 기도 바퀴와 염주만이 아니라 시간 집착도 같은 병이다
3. 성자의 비결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인식이다
4. 사람의 칭찬이 목표였다면 그것이 받을 상의 전부다
5. 서툰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닿는다

> **마태복음 6:7**
>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는 이방인식 기도관을 금한다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5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의 칭찬이 그들이 받을 상의 전부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5. 참된 기도 ① — 배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참된 기도도 접근 방법에 달려 있다. 어디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배제'의 과정으로 가르치신다. 어떤 사람들은 골방 말씀을 기도 모임을 금하는 말씀으로 오해해 “나는 모임에 안 가고 은밀히 기도한다”고 말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한다. 기도 모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권하는 것이며, 교회의 본질이자 생명이다. 골방의 원칙은 공석에서든 혼자서든 배제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잊는다. 다음으로 나 자신을 배제하고 잊는다. 그러면 붐비는 거리를 걸을 때도, 방을 옮겨 다닐 때도 골방에 들어갈 수 있다. 그는 자기 경험을 예로 든다. 강단에 오를 때 그는 어떤 의미에서 회중을 잊으려고 애쓴다. 그는 회중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회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반대로 자아로 가득 차 자기 기도를 자랑한다면 골방 문을 닫아도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편이 낫다.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야 한다.

1. 골방 말씀은 기도 모임 금지가 아니다
2. 먼저 다른 사람을, 다음에 나 자신을 배제한다
3. 골방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만 향한 마음이다
4. 길을 걸으면서도 골방에 들어갈 수 있다
5. 자아로 가득하면 닫힌 골방도 소용없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사람과 자아를 배제하라는 원칙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시편 86:11-12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찬송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11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저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 6. 참된 기도 ② — 인식: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배제 다음에는 '인식'이 와야 한다. 입을 열기 전에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 보라고 권한다. "나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소멸하는 불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거룩한 하나님을 뵈러 간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보다 그분이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이심을 인식하라고 강조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가는 일이다.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아버지가 아이의 필요를 앞질러 걱정하듯,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큰 뜻도 가지고 계신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듯 그분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 바퀴를 돌리거나 염주를 세지 말라. "몇 시간을 기도하기로 했으니 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말라. 온밤을 기도해야 복이 온다는 기계적 관념도 버려야 한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1. 입을 열기 전에 누구 앞인지 먼저 인식한다
2.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시다
3.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
4.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복 주기를 원하신다
5. 기계적 기도관을 버리고 관계를 먼저 본다

마태복음 6:6

기도의 대상은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다

>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8

구하기 전에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중언부언이 필요 없는 이유

>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요한일서 1:5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하나님. 경외로 나아가야 할 근거

>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2:29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그분의 두려운 거룩하심

>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마태복음 10:29-30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아버지의 세밀한 돌보심

>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에베소서 3:20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 7. 참된 기도 ③ — 신뢰: 어린아이처럼 구한다

마지막은 '신뢰'다. 하나님이 참으로 아버지시라는 확신을 품고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함을 보이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라고, 그것을 구하라고 하신다. 또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라거나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는 뜻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받으려는 것보다 더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며, 늘 내 행복에 관심을 두신다는 뜻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내게 가장 좋은 것 사이를 가로막고 계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값 주고 사 두시고, 충만한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아버지시다. 아버지들은 아이가 같은 것을 거듭 구하며 자꾸 찾아오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와 직접 만나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주 나아오기를 바라신다. 다만 의심하는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제하고, 인식하고, 신뢰하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D. L. 무디의 경험을 든다. 하나님의 복이 몸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쏟아져 "이제 그만 멈추소서" 하고 부르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 같은 신뢰다
2.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중언부언의 허락이 아니다
3.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로막는 분이 아니다

5. 배제·인식·신뢰가 참된 기도의 길이다

> **마태복음 5:6**
> 하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간절함을 기뻐하신다
>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누가복음 18:1**
>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끈질긴 기도를 권하시되 기계적 반복은 아니다
>
>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 **데살로니가전서 5:17**
>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의 분량이 아니라 아버지와 계속 교제하라는 뜻
>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마태복음 6:6**
>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약속
>
>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에베소서 3:20**
>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단순한 신뢰로 나아가라는 결론
>
>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 **오해와 반론** ⌄

📖 **용어** ⌃

속마음과 다르게 경건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위선이다.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것이라 여기며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기도다.

골방
여기서는 장소보다 사람과 자아를 닫아걸고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마음속 동기까지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자기 경배(자기 아첨)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죄의 본질로,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고 흐뭇해하는 마음의 성향이다.

중생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과 새 성품을 받는 것이다.

기도 바퀴(기도 윤당)
기도문을 넣고 돌리는 원통으로, 기계적 반복 기도의 대표적인 예다.

강단기도문
공중기도에 쓰려고 미리 다듬어 둔 기도문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죄는 마음의 성향, 곧 자기 경배라서 가장 거룩한 기도의 자리까지 따라온다. 그러므로 중생은 꼭 필요하고, 거듭난 신자도 늘 깨어 있어야 한다.

- 참된 기도는 접근 방법에 달려 있다. 사람과 자아를 배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식하고, 어린아이처럼 신뢰한다.
-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로막는 분이 아니라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려는 아버지다. 그러니 단순한 신뢰로 나아가면 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